

文의장-4당 대표, 국회 정상화 촉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최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는 10일 추가 경정예산(추경)안과 민생·개혁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두 달 넘게 파행 중인 국회 정상화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

찬·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낮 국회 사랑재에서 정례오찬 모임 '초월회'를 갖고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문 의장은 오찬에 앞서 모두발언

국회 사랑재서 '초월회'...황교안, 일정상 불참 文의장 "추경·민생현안 여야 협력 필요한 때"

을 통해 "무엇보다 국회가 빨리 열려야 한다.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 싸우야 한다"며 "지금은 시급한 추경과 민생 현안에 대한 여야의 협력력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부가 힘만 합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현재 이르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며 "모두 힘을 합쳐서 오늘을 계기로 이 문제에 관해 꼭 특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4당 대표는 황교안 대표의 불참을 지적하며 현재의 국회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해찬 대표는 "추경안이 제출된 지 47일이 지났는데도 한국당이 응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고 안쓰럽기 짝이 없다"며 "추경 하나 가지고 국회를 두 달 동안 파행시키는 것은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손학규 대표도 황 대표의 불참에 "참 답답하다. 당대표들이 모여서 얼굴이라도 보고 서로 길을 찾아보는 건데 지난번에도 안 왔다"며 "국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영 대표 역시 "정치가 실종됐다. 정치적 부재의 시대"라며 "반(反)정치만 판을 치는 시점에서 내각제로 말하면 국회 해산 시점이다. 주권자에게 국회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민을 볼 면목이 없다. 올해 들어 정상적으로 상임위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라며 "6월 국회 개회와 관련해 서로 책임을 떠넘길 때는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친박' 탈당 가능성에 황교안 "당내 분열은 없다" 일축

홍문종 탈당 언급 "진의원불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친박(親朴·친박근혜)계 홍문종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대한애국당에 입당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당내 분열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홍문종 의원이 대한애국당에 입당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저는 직접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저는 직접 알아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홍문종 의원이 대한애국당에 입당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저는 직접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저는 직접 알아보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당 인품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탄핵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친박계 의원들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거나 대거 탈락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은 지난 6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사태까지 있었고, 그 뿌리인 2016년 20대 총선 공천의 많은 후유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천)불합격이 폭도 클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에서 무더기로 탈락할 경우 탈당이나 신당 창당 등을 도모하며 한국당 지도부에 강력 반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흘러나오자 신 위원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에서 "한국당이 20대 공천에서 막장공천이라 불리는 국민 비공감 공천 문제로 혼란을 치렀다"며 "이 달 안에 공천안을 마무리하고, 사천(私薦)이 아닌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확실히 담보되는 이기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위대한 여성지도자 패유를 기원합니다"

李壽麗, 이희호 여사 문병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유(복유) 순방에 대해 "국민 정서 비(非) 공감의 태도로 나 홀로 숙련한 현실도파에 나섰다"며 "불쏘시개 지퍼 집구석 부엌 아궁이 있는 대로 달귀농고는 천렵(川獵)집에 정신 팔린 사람마냥 나홀로 냇가에 몸 담그려 떠난 격"이라고 표현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입원 중이신 이희호 여사님께 문안 올렸습니다"고 밝혔다.

이어 "위대한 여성지도자, 김대중 대통령의 반려이자 동지, 패유를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이 총리는 옛 민주당 출입기자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권유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고향인 함평·영광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3월부터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이 여사는 최근 위중했던 병환이 안정세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관계자는 전날 오후 "지난 6일에는 굉장히 안 좋았고 지금은 (신체)활력(力)이 낮아진 상태에서 회복됐다"며 "지금은 전혀(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스

與, 민경욱 '천렵질'에 경악... "끝없는 막말, 분노도 지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천렵질'이라고 농성한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에 대해 10일에도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민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에 대해 "국민 정서 비(非) 공감의 태도로 나 홀로 숙련한 현실도파에 나섰다"며 "불쏘시개 지퍼 집구석 부엌 아궁이 있는 대로 달귀농고는 천렵(川獵)집에 정신 팔린 사람마냥 나홀로 냇가에 몸 담그려 떠난 격"이라고 표현했다.

민경욱 "순방 文대통령, 천렵질에 정신 팔린 사람" 與, 즉각 반발..."공당의 논평이러니 토 나올 지경"

민주당은 즉각 민 대변인의 발언에 대한 비판 논평을 내고 반박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북유럽 순방에 나선 문 대통령에게 쌍욕보다 더한 저질 막말을 퍼부었다"며 "이런 공당의 논평이라고 내놓다니 토가 나올 지경"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과연 집권 경험에 있는 정당이 맞나. 이에 집권을 포기한 것인가"라며 "한국당 대변인의 배설 수준 막말은 한두 번이 아니다. 비판을 하기에 입이 이쁘

다"며 민 대변인의 대변인직을 박탈할 것을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은 10일 the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어떻게 하든 비판해야 되겠다는 강박증이 보이는데 대통령의 정상 외교를 가지고 천렵질이라고 하면 너무 심한 이야기"라며 "(한국당에) 정권을 맡겨서는 안 될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용어"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순방 외교를 나가는

인가. 김일성 정권 권력 서열 3위, 6·25 남침 최선봉에 선 그놈"이라며 "그런 놈을 국민 창설자라고? 이런 반(反)국가적, 반(反)헌법적 망언이 어디 있는가. 그것도 현충일 추모사에서 대통령이던 자가"라고 비난의 글을 올렸다.

이어 "이게 탄핵 대상이 아니고 뭐냐. 우선 입 달린 의원 한 명이라도 이렇게 외쳐야 한다.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의원은 이와 관련, "차전 의원은 징계를 받은 상태에서 또 (막말을) 한 건데 이런 경우는 반성의 뜻이 없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정치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거의 자폭 테러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징계를 하는 척하다가 면죄부를 주고, 망언 불용이라고 했다"며 "때로는 스스로 망언 대열의 선봉에 서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대표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저주의 말을 외치면 차 전 의원과 황 대표는 같은 입장인가. 그렇지 않다면 차 전 의원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건지 명백히 답하라"고 촉구했다.

윤소하 "뭐하자는 국회 협상이냐"

정상화 협상 파행 비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여야 3당 교섭단체의 국회 정상화 협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재 서명을 진행 중인 6월 임시국회 소집 동의에 개별 의원들의 동참을 거듭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여야 3당을 향해 "뭐하자는 국회 협상이냐. 말장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지하기 그지 없는 문구" 밀고 당기기가 국회 정상화의 결정적 조건이냐"고 따져붙였다.

여야 3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 문구를 놓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 비리기는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여야 4당이 함께 한 합의를 거래물로 삼아 국민의 뜻을 왜곡한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독자소집 요구 가능성을 운운하지 말고 개별 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주거나, 말장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지하기 그지 없는 문구" 밀고 당기기가 국회 정상화의 결정적 조건이냐"고 따져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광산구